

여수신항 대체 '신북항' 내년 착공

설계비 30억 확보… 2800억 들여 2019년 완공

국제 해상관광 거점항 육성

2012 여수 세계박람회장으로 폐쇄한 여수 신항의 대체 항 '여수 신북항' 건설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23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여수 신북항 건설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추진과정을 절경한 결과 항만 서비스 증대와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항만시설로 검토돼, 내년

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기획재정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시행한 여수 신북항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서도 경제적 타당성의 주요 요소인 비용편의 비율(B/C Ratio)이 0.95를 넘고 있어, 화물 취급 부두가 아닌 관공선 위주의 항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검증됐다.

이에 따라 현 신항 북쪽에 오는 2019년까지 2800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돼 신북항이 건설된다. 공사 일정은 내달부터 내년 9월까지 기초조사를 거쳐 기본설계를 마치고 1개월 뒤인 10월 시공사를 선정, 착공에 들어간다.

기존 여수신항 인근에 위치할 여수 신북항은 크게 외곽시설(방파제 1121m·방파호안 149m·북방파제 제거유

용 405m), 접안시설(관공선 및 역무선 부두 473m·물양장 130m·해경부두 500m), 항만 배후단지(친수시설·항만 진입도로)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여수 신북항을 여수박람회 시설 사후 활용과 연계해 국제적인 해상관광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올해 항만 설계비로 30억 원을 확보했다.

/동부취재본부=김천희기자 chkim@



통합의학박람회에서 진료 체험하세요

천관산 일대서 오늘 개막… 7일간 열려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24~30일)가 열리는 장은 천관산 일대에서 국내 유명 병원의 진료 체험하세요."

24일 개막하는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가 더욱 다양한 진료 체험과 행사를 마련했다. 통합의학은 서양의 학과 한의학, 대체의학 중 안전성이 증명된 치료법을 선택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과의 수기요법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또 신경관에서는 ▲국립나주병원의 신경 인지검사 ▲원광대 한방병원의 뇌졸증 한방치료 ▲한국 아로마테라피 인증학회의 향기요법 심리치료가 이뤄진다.

피부관에서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운영하는 혈관나이 측정 ▲화순 전남대병원의 암 진료검진 ▲여수 백병원의 어깨 진료검진 ▲동신대 한방병원의 관절 한방진료 ▲미루요양 학교 뷰티 미용학과의 아토피 여드름

피부관리를 받을 수 있다.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면 건강 검진관을 찾으면 된다. 이곳에서는 ▲선문대학교 통합의학 대학원의 온열치료요법·카이로프랙틱(척추 교정) ▲전남대학교병원의 심뇌혈관 질환검사 ▲조선대학교병원의 재활치료, 밝은 광주안과의 안과 질환검사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의 혈관 노화도검사 등 다양한 진료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전남도 배암자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번 박람회는 100% 진료검진과 자연을 체험해보는 건강박람회로 준비했다"며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 자연과 건강을 함께 맛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

진도지역 어린이들이 군내면 진도대교 뒤편 뒷나루 매밀밭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진도군은 불거리 제공을 위해 부지 25ha에 매밀꽃밭을 조성하고 원두막과 허수아비 등을 설치했다.

〈진도군 제공〉

순천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힘 모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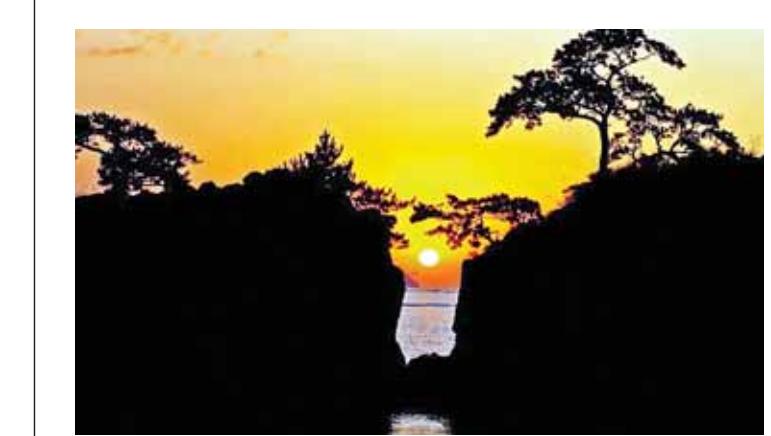
전남 22개 시·군의회 협력 내달까지 자원봉사자 모집

전남지역 22개 시·군의회가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전남 22개 시·군의회 의장회는 23일 강진군 회의실에서 '제179차 전남지역 시·군의회 의장회'를 열고 내년 4월 열리는 순천만 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열리도록 협력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제택했다.

결의문은 순천만 정원박람회가 지난 5년간 도시발전 및 생태환경에 대한 비전 제시와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만큼 정부도 법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담고있다.

이날 열린 의장회에서 김대희 순천시의회 의장은 순천만정원박람회가 전남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상생 차원에서 순천을 공무원 워크숍 장



해남 땅끝 맴섬 일출 24~29일 '황홀경'

"땅끝마을 맴섬의 황홀한 일출 보러 오세요."

해남군 송지면 땅끝마을 선착장 앞에 있는 '맴섬' 일출 장관이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펼쳐진다. 특히 26~27일 이틀간 작은 두 개의 섬 정중양에서 해가 뜨는 황홀경을 맞볼 수 있다.

맴섬 일출은 매년 2, 10월 두

차례만 볼 수 있다. 장엄하면서도 아름다운 광경을 보기 위해 매년 전국의 사진 동호인과 관광객이 몰려든다.

민성배 송지면장은 "맴섬 일출 도 보고 추자도에서 막 잡아온 상상한 삼치도 맛볼 수 있어 멋진 가을여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목포시, 관리·운영 조례 제정

영광 박람회를 앞둔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 대한 관리·운영 조례가 제정된다.

목포시는 "기념관 운영에 따른 법적인 균형을 마련하고, 기념관의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는 휴관일을 비롯해 관람 및 관람시간, 관람료, 시설의 대관료, 교육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모집, 편의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일반 관람객의 경우 어른 4000원(65세 이상은 무료), 청소년 및 군·경 3000원, 초등학생 1500원의 관람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목포시 거주자는 관람료의 50%를 감면하고 초등생과 유치원생은 무료다.

기념관의 정기휴관은 매주 월요일이며,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동절기는 오후 6시)다.

또 기념관 내 기획전시실을 비롯한 세미나실, 다큐적 강당과 다목적 홀 등 각종 시설에 대한 대관 허가 신청서를 사용해 2개월 전부터 7일 이내에 시에 제출하면 이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시가 기념관을 직영할 경우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총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념관 운영과 관련해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회원제를 운영하고, 자원봉사자 및 도슨트를 모집·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한순덕 목포시 관광사업과장은 "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입법에 고려하고 다음달 1일까지 시민의견을 접수 받고 있다"면서 "이 조례안과 '재단법인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운영 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행정절차 이행후 11월 9일 예정된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일한 화장시설로 현재 옥암동에 화장장 3기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하루 평균 처리 용량이 9회에 불과한데다가 시설이 노후화돼 그동안 각종 민원이 발생해 왔다.

목포시는 지난 2008년 2월 타당성 용역조사를 통해 건립계획을 수립한 이후 지난 9월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종합 장사시설이 완공되면 주민들의 민원해소는 물론 목포시를 비롯한 서남권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 성 비염은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용증(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장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력이 나빠져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부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

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균질거리면 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일으키면서 이마에 흥건한 물이 묻어나온다.

평강한의원 이원용 박사는

이번 치료법은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고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기능 향상에 좋은 성분인 유근피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약은 주재료인 칡나물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노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멎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여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칡나물나무 뿐만 아니라 칡나물, 콧병 치료에 효과적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고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원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마련한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원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종종족

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고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기능 향상에 좋은 성분인 유근피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약은 주재료인 칡나물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노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멎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여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칡나물나무 뿐만 아니라 칡나물, 콧병 치료에 효과적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고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원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마련한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원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종종족

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150여 가지의 측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 수 있는 측석 프리미엄뷔페!!

종합 장사시설은 (재)하늘나루로

부터 2만3502㎡의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민·관 합동으로 건립되며, 2014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곳에 목포시는 화장장 6기를 갖춘 무연(無煙)·무취(無臭)의 화장장과

시립 봉안당 5000기장을 조성하고, 하늘나루에서는 화장장 시설과 더불어 현

대식 봉안당과 장례식장을 건립해 텔랄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